



2021년 4월 18일(제1031호) 부활 제3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빈 무덤에서 희망을 3”

오늘은 빈 무덤과 같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모 올타리의 하용수 원장님입니다.

하용수 원장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용수 원장님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3살 때 가출한 뒤 소매치기가 되어 소년원을 전전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조직을 거느렸고, 도박과 마약의 늪에 빠져 폐인처럼 지냈으며, 몇 차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집주인의 권유와 아내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남종삼 요한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수도원 피정에서 하느님 체험을 한 이후로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쁜 습관들을 끊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하 원장님은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사는 교도소 출소자들을 모아 성모 올타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공동체 형제들을 피정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00여 명이 하 원장의 인도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형제는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모 올타리에서는 방부제 없이 우리밀과 유기농 재료로 빵을 생산하고 판매해 출소자들의 자

립을 돕고 있습니다. 하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복역을 한 출소자들에게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 원장님의 아내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인도로 저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금 살아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동체를 꾸리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과거에 비하면 백배 천배 더 행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용수 남종삼 요한 형제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빈 무덤에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유병국(요한보스코) 신부  
인천해군(인방사) 성당 주임

### 제 1 목 시 회 ㅅ 송 제 2 목 시 복음 ㅅ호송

사도 3,13-15.17-19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1요한 2,1-5ㄱ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24,35-48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야. 알렐루야.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일곱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리브와 신부님께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2월 16일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먼저 써 놓은 편지를 아직 보내지 못하였으므로 새로 들은 소식을 추가하여 동봉합니다.

12월 23일에 매스트르 신부님이 안배하신 대로 4일이 걸려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연락원 김 프란치스코는 벌써부터 변문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우리와의 상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안내자들이 오지 않은 줄로 알고, 외교인 친구들의 호의와 후원으로 그들을 수행하여 중국에 들어갈 허가를 얻어, 북경으로 들어가는 일행 중에 명단이 올라서 조선 임금님이 보내는 사신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변문에서 멀지 않은 길거리에서 사신 일행과 함께 가는 그를 만났으나,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8년 전에 단 한 번 서로 만나 본 일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교우냐고 물었더니, 그가 자기는 교우이며 세례명은 김 프란치스코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저도 그에게 비슷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북경행을 중지하고 변문으로 되돌아가서, 선교사 신부님을 담당 선교지인 조선으로 인도하여 드릴 방도를 의논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외교인 동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박해의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장차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온 중국인 안내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 보면 신부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교를 위하여 살해되었고, 거의 200여 명이나 되는 신자들도 살해되었는데, 그들 중 다수가 지도급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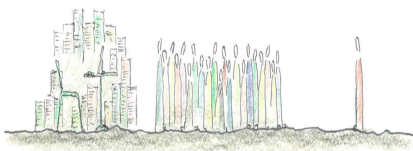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익숙한 곳에서님을

나의 자리.  
나의 사람들  
속에서  
님께서 계신다.

나는  
그 속에서  
님을  
찾아야 한다.

너무 익숙한  
그곳에서.



상화이야기

엠마오의 저녁식사



마티아스 스톰, 1633년경 작  
캔버스 위 유화, 111.8x152.4cm / 마드리드 국립미술관, 스페인

이 그림은 자신들과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다. 식탁 중앙의 촛불에서 오는 빛이 인물들을 비추고 있으며, 예수님은 방금 막 빵을 쪼개 나누어주고 계신다. 식탁 위 음식은 빵만으로 매우 단출하고 소박한 식사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중략)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3주일: 백미 윤원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 때: 4월 18일(주일) 11:00

◆ '신부(神父)의 책장' 인내

- 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방영 채널: 군중교구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